

‘평화·안전’ 평창올림픽 세계 찬사… 베트남 박항서 열풍

체육기자가 뽑은 올 스포츠 10대 뉴스

1 30년만의 올림픽 ‘평창대회’ 성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25일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렸다. ‘삼수’ 끝에 일본(1972·1998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의 경험을 발판 삼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문화·ICT(정보통신기술)·안전올림픽으로 치러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92개 나라에서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출전국·출전 선수 규모를 새로 쓴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스키레톤, 봅슬레이, 스키 스노보드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 5개, 은 8개, 동 4개를 획득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에 올랐다. 2010년 밴쿠버 대회(14개)를 뛰어넘어 17개의 메달로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도 세웠다. 적자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619억원의 흑자를 남겨 최소 비용으로 경제올림픽도 실현했다.

2 평창·AG 등 남북 교류 활발

2018년에는 남북 화해 무드와 맞물려 남북 스포츠 교류가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 2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린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은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5개 종목에 선수 22명을 파견했다.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천했고, 남북은 개회식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화답했다. 한 달 후 열린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선 남북이 개회식 공동입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20명의 선수단을 동계패럴림픽에 처음 파견했다.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은 역대 국제대회 11번째로 공동 입장했고, 여자농구와 키누(웅신),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했다. 국제종합대회 말고도 탁구, 유도, 태권도 등 개별 종목에서 활발한 남북 교류가 진행됐다.

3 러월드컵 한국, 세계 1위 독일 격파



자신 6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2-0으로 독일을 이긴 한국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감동과 환희, 실망과 좌절을 한꺼번에 맛보게 했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올해도 16강 진출엔 실패했으나 ‘전차군단’ 독일을 제압하는 이변도 연출했다. 신태용 전 감독은 ‘통쾌한 반란’을 내세우며 러시아로 향했으나 조별리그 첫 스웨덴전에서 유효슈팅 하나 없는 졸전 끝에 0-1로 무거운 패배를 맞았다. 멕시코와 2차전에선 몇 차례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줬고, 종료 직전 손흥민이 골도 터졌지만 1-2 패배.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당시 세계랭킹 1위 독일이었다. 독일을 상대로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타진 김영권과 손흥민의 연속 골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0 승리를 거뒀다. 비록 멕시코가 스웨덴에 지면서 16강의 희망은 날아갔지만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4 만났 드러낸 빙상계 파벌 갈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빙상계의 케케묵은 파벌싸움과 갈등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주력 대표팀은 김보름과 박지우가 뒤로 처진 노선영을 챙기지 못해 ‘왕따 주행반란’이



2018년에는 남북 화해 무드와 맞물려 남북 스포츠 교류가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탁구는 5월 스웨덴 세계선수권에서 여자단체전 8강 대결이 예정됐던 남북이 경기 없이 단일팀으로 4강에 올라 남북 전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은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여자 단체전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빛어졌고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졌다. 쇼트트랙에서는 여자대표팀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이 올림픽 앞두고 알려져 큰 충격을 던졌다. ‘영미 열풍’을 일으킨 여자 컬링 대표팀 ‘팀 김’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이 사적인 목표로 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했다. 남북 단일팀을 꾸려 많은 감동을 안긴 여자 아이스하키도 내홍을 겪었다. 대표팀을 이끈 세리 머리(캐나다) 감독은 올림픽이 끝난 뒤 선수들이 훈련을 거부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해 제약을 하지 못했다.

5 류현진 한국 최초 월드시리즈 선발



류현진이 지난 10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세츠루 보스턴 레드삭스의 2018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보스턴 레드삭스와 2차전 선발투수로 나서 1회 투구하고 있다.

2018년 10월 25일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마운드에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섰다. 류현진은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와 2018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다저스의 선발투수로 등판했다. 비록 4.2이닝 6피안타 1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록하고 팀이 2-4로 패하면서 패전 멍에를 썼지만, 류현진은 이 경기 등판 자체로 한국 스포츠사에 획을 그었다. 류현진은 월드시리즈에 선발투수로 등판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다. 2001년 김병현, 2009년 박찬호가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지만, 선발 등판은 아니었다. 시즌 초반에는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시련을 겪었던 류현진은 8월 중순 복귀 후 9차례 선발 등판에서 4승 3패 평균자

책점 1.88로 맹활약했다. 이는 다저스가 시즌 막판 급상승세를 타며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이룬 원동력이 됐다.

6 손흥민, 유럽리그 100호골 돌파

‘손세이셔널’ 손흥민(26·토트넘)이 세계 축구의 심장부인 유럽 무대에서 개인 통산 100호골을 돌파하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레전드’를 향해 순항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2018-2019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사우샘프턴과 벌인 홈경기에서 팀의 3-1 승리를 완성하는 썬더볼을 작렬하며 유럽 1부리그 무대에서 통산 100번째 골을 작성했다. 유럽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100골 이상 기록한 것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 121호골을 작성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후 손흥민이 역대 두 번째다. 손흥민은 만 18세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데뷔,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9골을 기록했다.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지난 6일 사우샘프턴전 득점으로 51골을 적립,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00호골을 채웠다.

7 AG 야구대표팀 병역 특혜 논란

지난 6월 선동열(55)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할 최종 엔트리 24명을 발표했다. 선 감독이 병역 기피 논란이 적지 않았던 오지환(LG)과 박해민(삼성)을 모두 발탁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금메달을 이끌고도 환영받지 못했다. 오지환과 박해민의 선발을 밀어붙인 선 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선 감독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가시방석에 앉고도 책임감으로 버티던 선 감독은 정은찬 KBO 총재의 국정감사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정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전임감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선 감독이 TV로 경기를 보고 대표팀 선수를 선발할 것에 대해서는 “감독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 감독은 “저의 자진 사퇴가 총재의 소신에도 부합하리라 믿는다”고 밝히며 16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다.

8 정현 남자단식 최초 호주오픈 4강



지난 1월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승리한 정현(오른쪽)이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경기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1월 호주오픈에서는 정현(22·한국체대)이 한국 선수 최초로 남자단식 4강까지 진출하며 우리나라 테니스 역사를 새롭게 썼다. 기권승에 이어 3-0 완승으로 3회전에 진출한 정현은 알렉산더 츠베레프(4위·독일)를 만났다. 3세트까지 세트스코어 1-2로 밀리며 힘든 경기를 펼친 정현은 4세트를 6-3으로 따내 승부를 5세트로 넘긴 뒤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16강 상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였다. 상승세를 탄 정현은 조코비치를 상대로 매 세트 접전을 벌였고 결국 3-0(7-6(7-4) 7-5 7-6(7-3))의 믿기 어려운 승리를 일궈냈다. 비록 4강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상대로 발바닥 물집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2세트 도중 기권했으나 정현은 올해 세계 랭킹 19위까지 오르는 등 한국 선수 역대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 최고 랭킹 등의 기록을 세웠다.

9 AG 4강 등 박항서, 베트남 축구 새역사

지난해 10월 베트남 대표팀 감독에 취임한 박항서(59) 감독은 연일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며 ‘국민 영웅’ 반열에 올랐다. 시작은 부임 약 3개월 만에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고 나선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었다. 베트남은 연이어 펼쳐진 연장 승부 속 후원을 불사르

며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울여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박항서 매직’에 또한 번 불을 붙였다. 베트남은 조별리그를 무실점, 3연승, 조 1위로 통과했고, 이후에도 바레인, 시리아를 줄줄이 격파하고 준결승에 올라 사상 첫 ‘4강 신화’를 일궜다. 동남아시아 월드컵보다도 열기가 뜨거운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에서는 10년 만의 결승 진출에 이어 우승까지 이끌어 베트남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10 2위 SK, 두산 누르고 KS 우승



지난 11월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 13회초 SK 한동민이 결승 솔로포를 날린 뒤 환호하는 모습.

2018년 한국프로야구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SK 와이번스였다. 트레이 힐만 감독은 한국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고도 팀을 떠난 사령탑’으로 기록됐다.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친 SK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 5차전 연장 10회말 타진 한동민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두산 베어스와 맞선 한국시리즈에서도 6차전 연장 13회초에 나온 한동민의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다. 한동민은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누렸다. 4승 2패로 한국시리즈를 마친 SK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자 구단 역사상 역대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두산은 정규시즌에서 단일시즌 최다 타이인 93승(51패)을 거두며 내내 독주했지만, SK의 기세를 누르지 못하고 통합우승 달성에 실패했다.